KB증권

채권 Strategist 김상훈
02-6114-2090 hoon.kim9@kbfg.com

채권분석

2022년 1월 14일

KB BOK Watch

한국 금리인상 전반전은 종료

1월 금통위 기준금리 1.25%로 25bp인상. 동결 소수의견 1명

기준금리는 1월 금통위에서 1.25%로 25bp 인상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이 되었다. 주상영 위원이 8월, 11월 금통위에 이어 동결 소수의견을 내었다. 통화정책방향문의 주요 내용 및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며 회복 흐름 이어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금리와 주가가 하락 후 반등.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 받을 전망. 2)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 지속. 민간소비 회복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했으나, 수출은 호조 지속.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로 다소 조정. 고용은 개선 지속. GDP 성장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한 대로 3% 수준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높은 오름세 지속,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3%대 후반으로 높아짐. 근원인플레는 2%대 초반 수준을, 일반인 기대 인플레는 2%대 중후반 수준.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11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 상회, 근원인플레도 2% 상회 예상. 3)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축소,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 다소 둔화. 4) 종합판단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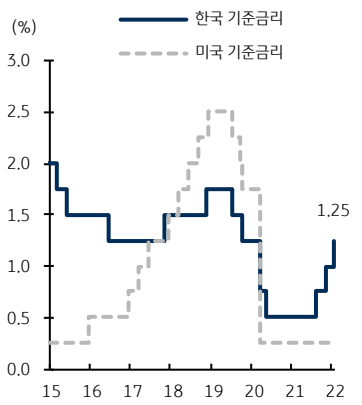
금리인상해도 여전히 완화적. 추가 인상 필요

한은총재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팬데믹 이전의 기준금리로 회귀했으나 경기, 물가, 금융안정 고려시 여전히 완화적이어서 추가 조정 필요. 2) 추가 인상으로 기준금리 1.50%가 되어도 긴축으로 보기 어려움. 3) 양적긴축 등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빨라지면 영향 있겠으나 국내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 4) 한은 통화정책 연준보다 선제적이고 국내 상황 우선이나 연준 통화정책은 영향 있어. 5) 소비 기조적 회복, 수출 호조로 국내 경제 꾸준한 성장 예상. 6) 추경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 시 단순매입 등 안정 노력. 7) 가계대출 증가, 주택가격 상승 다소 둔화되나 추세적인지 아직 불확실. 8) 재정정책과 엇박자 아님. 9) 인플레이션은 병목현상 등으로, 성장은 잠재수준을 상회하므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려움. 11) 이자부담으로 인한 가계 부담 있어도 가계 자산도 증가해 전체 소비를 위축시킬 정도는 아님. 연체율 등 자본 적정성은 양호.
12) 이제는 금리인상 효과 계측 가능, 필요해 통방문구 추가. 13) 유가 등 공급측 압력 지속, 물가 상승 광범위해지며 예상보다 크게 확대.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낮아질 전망

하반기 추가 인상 예상되나 당분간 금리는 추경에 더 영향

KB증권은 금융안정으로 주요국 중 가장 먼저 팬데믹 이전의 기준금리 회귀 후 연준에 공조하며 하반기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따라 시장에서는 2023년 인상이 당겨지며 연말 기준금리 전망이 1.5%에서 1.75%로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는 통화정책보다는 적자국채 규모가 금리 변동성을 높이는 가운데, 지난해 전고점 (국고3년 2.1%, 국고10년 2.57%) 1차 저항 여부 대응 권고를 유지한다.

한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